

안녕하세요 저는 시화호로 유명한 경기도 시흥 배곧해솔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홍진주라고 합니다.

시화호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께서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잔뜩 오염된 시화호의 모습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화호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사진들은 제가 시화호 생태지킴이와 함께 2024년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대송습지에서 시화호 내해와 외해에 있는 조류들을 시민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2024년 시화호 유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150종으로 그중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 7종,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 26종, 천연기념물이 26종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법정보호종으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이며 매년 대송습지에서 포란을 시도하는 검은머리물떼새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한 지역 사회의 조류를 어떻게 교실 속 생태 수업과 연결 짓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은 조류 관찰에 있어서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송습지가 위치한 대부도와 가까우며, 저희 학교 주변 공원의 갯벌체험장에서도 종종 법정보호종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월 15일 스승의날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저희 학교 바로 옆 고등학교 공사장 부지에서 시끄럽게 나는 익숙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물떼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꽃으로 유명한 시흥 관곡지에는 매년 연꽃이 피기 전에 아주 가까이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저어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류 관찰에 있어서 최적의 도시이지만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조류를 이용한 생태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3교시 창체 시간, 저는 새 수업을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6종의 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어른들이라면 처음 들어봤거나 혹은 헛갈릴 검은머리물떼새, 뿔논병아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흰머리 오목눈이, 오목눈이, 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물까치, 따오기, 왜가리, 황새, 넓적부리 황새 등을 구별하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 3학년의 특색사업은 생태수업인데요, 동학년 선생님들의 협조 속에서 저희 3학년 교실 곳곳에는 천장에도, 창문에도, 벽에도 새의 그림이나 모빌이 붙어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새와 친숙해진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새를 이용한 교실 속 생태 수업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류를 이용한 생태수업을 할 때 일종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가능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조류 소개 - 관련 동화책 읽기 혹은 관련 토론 활동 실시 - 만들기 및 그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저희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 중 하나인 저어새입니다. 저어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주걱 같은 부리로 물속을 저어서 먹이를 찾는 것이 특징이 새입니다. 영어로는 'Spoonbill'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에는 관곡지를 비롯하여 갯벌 등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처 인천 남동구에는 아예 저어새생태학습관이라는 곳이 있고, 저어새생태학습관 앞 남동유수지 내의 인공 섬에서는 매년 저어새들이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저어새를 소개한 뒤, 함께 <저어저어 저어새> 동화책을 읽은 뒤 인터넷에서 제공받은 저어새 종이모형 만들기 자료를 통해 저어새 종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새인 황새입니다. 황새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텃새로 흔했지만 멸종되었다가 다시 복원한 사실 아시나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계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황새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황새생태연구소가 한국교원대와 예산황새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새를 워낙 좋아해서 당연히 두 장소 모두 방문했습니다. 특히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소에서는 어린이날이면 일반인에게도 연구소 건물을 개방하여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황새 모빌, 액자 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유리창 너머로 실제 황새들에게 미꾸라지를 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을 가르칠 교사로서 2024년 어린이날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소에 방문해서 모빌 만들기를 해보고, 황새가 미꾸라지를 먹는 모습도 관찰하고 모빌 만들기 키트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반에서 진행한 황새 수업에서 이 모빌 만들기로 학생들과 함께 황새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만들기 활동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곧 학생들이 토론거리가 되지요. 전세계적으로도 몇백마리 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수업은 관련 도서를 읽고 학생들과 함께 창문 토의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새와 친해지게 하는 생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자료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학생들은 가장 집중해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인터넷에는 수많은 탐조인들이 찍은 고품질 영상이 있고, 저도 그 영상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류 관련 동화책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모 회사의 도서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데, 이 서비스만 봐도 새와 관련된 동화책들이 꽤 있습니다. 새를 소재로 한 동화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동화책들이 새의 생태학적 특징과 함께 환경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저어저어 저어새>는 갯벌 매립으로 인해 저어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토의 토론 활동도 진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활동은 바로 새 그림 그리기입니다. 도감이나 태블릿 PC 검색을 통하여 학생들이 새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는 활동은 새의 주요 특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황새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새의 부리가 검정색이었던지 붉은색이었던지, 다리는 무슨 색이었던지 한 번씩 생각하며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종의 특징은 새 동정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새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새를 가르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도록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 이외에도 조류, 곤충, 포유동물을 비롯해 해, 바람, 물, 강, 바다 등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교실 속 생태교육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주변의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